

새 생명 살리기 사랑운동 펼치는 한국신장협회

우리 몸에 유일하게 두개 있는 장기가 바로 신장이다. 신장은 둘 중 하나가 없어져도 나머지 하나가 그 기능을 대체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할 때는 두개가 모두 건강한 반면 이상이 있으면 동시에 못쓰게 되어 신장병으로 판명이 나는 즉시,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 모두를 힘겨운 투병의 생활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신장이다.

신장병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성신부전증은 신장기능의 80%에 이상이 생겨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고 조혈작용을 할 수 없게 되는 병이다. 환자들은 신장기능을 대신해 주는 인공투석기를 이

용하여 온 몸의 피를 걸러 내는 치료를 받아야 생명을 지속시킬 수 있다.

보통 한번의 투석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3만원 선으로 한 달에 10여회 투석 치료를 하고 조혈제 등의 약을 복용하려면 최소 50여만원이 고정적인 치료비로 지출되어야 한다.

이런 까닭에 투병이 시작되면서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생활까지, 평생동안을 병마와의 지루한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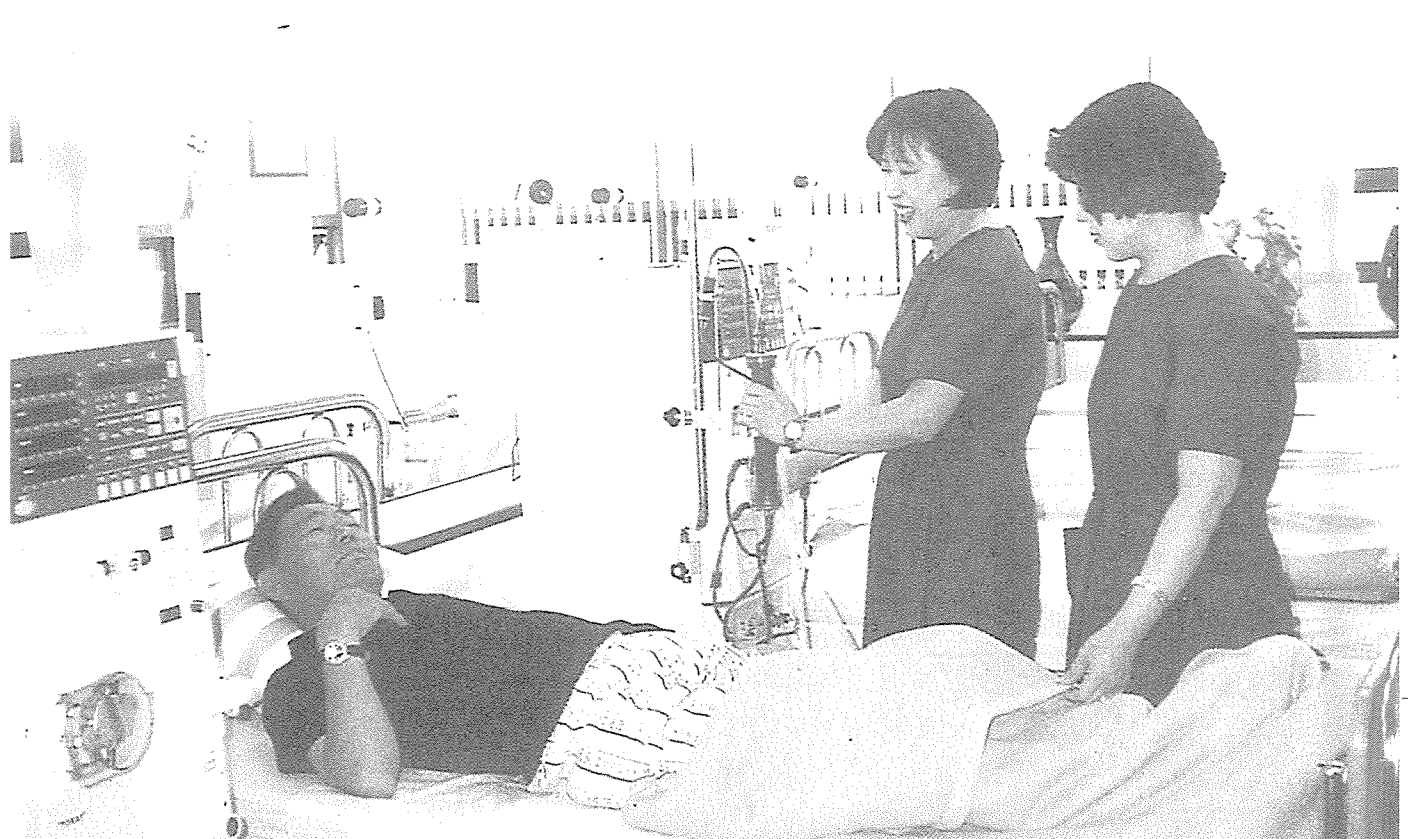
이렇듯 한 사람의 인생을 고난으로 이끄는 이 병은 아직까지 특별한 발병원인도, 예방책도 없다는데서 우리 모두는 신장병 환자와

함께 이 병의 치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라.

가장 외롭고 힘든 것이 혼자서 해야 하는 투병생활이 아닐까. 혼자보다는 둘이 낮기에 서로에게 살아 가는 희망을 주고자 신장병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가 바로 한국신장협회이다.

1979년 3월 세브란스병원 인공투석실에서 당시 신장병을 앓고 있던 6명의 환자로 시작된 것이 한국신장협회의 시초이다.

이어 전국의 많은 신장병환자들이 이 모임에 동참하게 되고, 환자뿐 아니라 환자의 가족과 이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후원자들이 이 모임을 구성하게 된다. '97년





에는 다른 신장병환자들의 모임들과 대 통합을 결의, 현재 15,000여 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다.

신장협회는 그 동안 환자들의 어려운 여건을 대변해왔다. 일생동안 180회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관련 법안의

철폐를 주장해 의료보험 혜택을 평생동안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을 인하하는 등 실제 신장병 환자들의 투병생활에 가장 큰 애로 사항이었던 경제적 부담을 어느 정도 경감시켰다.

협회에서 하는 일이 비단 신장병 환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만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신장병 환자와 일반인들 사이에 다리가 되어 환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신장병에 대한 홍보와 후원금 모집을 실시하고 있다. 보통 일반인들이 신장병을 몸이 붓는 병 정도로 알고있는데, 신장병의 실체를 알려 병을 예방하고, 일반인들이 신장병 환자들에게 진심어린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홍보의 의도이다.

그리고 협회가 커지면서 추진하게 된 일이 바로 신장이식이다. 신장병 환자들은 대부분 평생동안 투



석치료를 하면서 살아야 하고, 생명이 다 할 때까지 정상인으로 생활할 수 없다. 이들이 정상으로 완치될 수 있는 길은 바로 타인의 신장을 이식하는 것 뿐으로 대부분 뇌사자의 장기가 기증되는데, 등록된 신장병 환자 중 가장 적합한 신체 구조를 갖고 있는 환자에게 이식하게 된다.

협회는 신장병 치료의 완결편인 신장이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장기를 타인에게 선뜻 내주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많아 실제 혜택을 보는 경우는 전체 환자의 5%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협회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돌봐줄 가족이 없는 환자들을 위해 무료기숙사를 운영하는 등 신장병 환자들을 위해 손과 발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은 후원자



들이 5,000원, 10,000원 입금해 주는 후원금으로 유지되는데 요즘 경제사정이 어려워 후원금이 줄어들고 있는게 현실이다.

현재 신장협회는 후원금 모집의 일환으로 '사랑의 동전 모으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관공서나 농협을 방문하면 누구나 작은 정성이 담긴 동전으로 꺼져가는 신장병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동참할 수 있다. [7]

(글·한연수(자유기고가))

- * 후원자가 되어주심은 꺼져가는 한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 *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이웃들이 꺼져가는 불꽃처럼 다 피어 보지도 못한 채 만성신부전으로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 *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후원금은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의 치료비, 신장 기증자 확대 등으로 지원 됩니다.
- * 가까운 은행 지로(지로번호 7604522)로 후원금을 발송합니다. 전화번호 (02) 386-4463-5

한국신장협회